

1986년 멕시코부터 2010 남아공까지 사진으로 만나는 월드컵 영웅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1986년 멕시코월드컵 불가리아와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1990년 6월 18일 우디네 프리올리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월드컵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한국 대표팀. 꽃으로 만들어진 태극기가 이채롭다.

1994년 미국 월드컵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스페인과의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998년 6월 20일 마르세유에서 열린 프랑스월드컵 네덜란드와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월드컵대표팀.

2002년 한·일 월드컵



2002년 3월 4일 경기 파주NFC에서 새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하는 월드컵대표팀.

2006년 독일 월드컵



2006년 6월 19일 라이프치히 젠트랄스타디움에서 열린 독일월드컵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기념촬영하는 한국월드컵대표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0년 5월 19일 파주NFC에서 열린 포토데이에 새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하는 남아공 월드컵대표팀.

서구청 펜싱 '전국 최강'

전국남녀펜싱선수권, 남·여 단체전 우승...강영미 개인전 금 '2관왕'

서구청 펜싱팀이 전국대회에서 남·여 단체전을 싹쓸이 하며 다시 한번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북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서구청 펜싱팀은 남·여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예배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구교동·신동준·박중환·김윤태는 울산시청을 맞아 45대4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펜싱 국가대표인 강영미·최은숙을 비롯, 이바다·김미정이 호흡을 맞춘 여자부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경기도체육회를 21대18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특히 18일 열린 예매 개인전에서 서구청 에이스 강영미는 충북 도청 유난지를 15대10으로 여유 있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박광현 감독은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체전에서 우승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올해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만큼 계속되는 좋은 기운을 이어 금메달 수를 늘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강영미는 강한 체력과 막고 찌르는 기술이 좋은 선수다. 지난해 대표팀에 들어갔지만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교동·신동준·박중환·김윤태는 울산시청을 맞아 45대4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펜싱 국가대표인 강영미·최은숙을 비롯, 이바다·김미정이 호흡을 맞춘 여자부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경기도체육회를 21대18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특히 18일 열린 예매 개인전에서 서구청 에이스 강영미는 충북 도청 유난지를 15대10으로 여유 있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박광현 감독은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체전에서 우승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올해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만큼 계속되는 좋은 기운을 이어 금메달 수를 늘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강영미는 강한 체력과 막고 찌르는 기술이 좋은 선수다. 지난해 대표팀에 들어갔지만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제15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구청 펜싱팀. 왼쪽부터 신동준, 박중환, 강영미, 최은숙, 이바다, 김윤태, 구교동. /서구청 제공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이 심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펜싱팀은 2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7일간 열리는 제15회 전국남여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해 연승을 노린다.

하루 휴식후 복귀 추신수, 무안타 침묵

하루 만에 선발 라인업에 돌아온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볼넷 1개를 얻었으나 3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78에서 0.275로 떨어졌다. 출루율도 0.428에서 0.425로 하락했다.

전날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배려로 시즌 세 번째로 라인업에서 빠져 휴식을 즐긴 추신수는 이날 피츠버그 왼손 선발 투수 프란시스코 리리아노에게 묶여 안타를 뽑지 못했다. 1회 볼넷을 얻은 추신수는 조이 보토의 타석 때 도루를 감행했으나 2루에서 잡혔다.

신시내티는 솔로포 4방에 힘입어 4-1로 이겼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유격수 조이 보토(왼쪽)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 1회에 2루로 도루하는 레즈의 추신수를 태그아웃으로 저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목포시청 하키 종별대회 우승

김은실 MVP 수상

목포시청 하키팀이 제56회 전국종별 하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3 KBS 전국축제공예 남·여 하키 대회 준우승과 제32회 협회장기 전국 남·여 하키 대회 준우승에 이어 쾌거여서 그 의미가 더했다.

지난 12일부터 4일간 4개팀이 참여해 충북 제천 청풍 명월 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목포시청 하키팀은 12일 첫경기에서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 13일에는 강호 KT에

2대1로 승리했으며, 15일에는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 합계 2승 1무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청 하키팀 김용배 코치는 '지도상', 김은실 선수는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줘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목포시청 하키팀은 1982년 창단돼 현재 20명의 선수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학 하키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목포=정해성 기자

"전남 드래곤즈 '마스코트' 이름 공모합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새로운 마스코트(사진)를 만들어 공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름 공모'를 실시한다.

전남이 18일 공개한 새 마스코트는 175cm, 70kg로 부드러운서도 친근함을 주는 이미지로 제작했고 전남의 팀 컬러인 노랑색을 사용해 대중에게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배번은 구단 창단 년도인 94년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새로운 마스코트를 공개한 전남은 그라운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고의 팬 스킨십 마케팅 전략을 완성하게 됐다.

한편 전남은 이번 공식 마스코트 공개를 기념해 마스코트의 이름을 공모한다. 이날 공개



된 마스코트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적어 공모하면 된다. 1인 1개만 응모할 수 있으며 메일(argoss@dragons.co.kr)로만 응모가 가능하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전남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작 1명에게는 원하는 선수의 레플리카 유니폼과 기념사진 촬영을, 가자 5명에게는 친필 사인볼과 화환 아쿠아플라넷에서 후원권을 제공한다. /김기식 기자 pj21@kdaily.com

4·19전국통일의병대 야구단 창단

22일 창단기념 5개팀 초청 야구대회 열려

4·19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사회인 야구단이 창단된다.

'4·19전국통일의병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일고 강당에서 창단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4·19전국통일의병대 야구단(단장 김용규)은 그동안 일반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동했던 선수들 중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참여한 야구인들로 야구를 통한 남북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창단에 동참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야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12월 4·19정신이 투철한 사회야구동호인 24명으로 팀 구성을 완료, 매주 주말을 이용해 훈련을 이어왔다. 20대부터 40대로 이뤄진 선수들은 평균나이 35세로 나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국 감독과 전 서구청 리틀야구단 감독 출신인 오동찬 코치를 주축으로 교수, 공무원, 사업가, 대형마트 점

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야구인들로 구성됐다.

또 초대 단장에는 90년대 초 해태타이거즈 유격수 출신인 김용규씨가 맡아 야구단을 이끌게 된다.

한편 이날 창단식을 마친 뒤 광주 무등중학교 야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창단기념 야구대회를 갖는다. 남광주JC, 대한철강, 유한김벌리, 위리어스우리필프스 등 5개팀을 초청해 7회 토너먼트로 경기로 승부를 펼친다. /김기식 기자 pj21@kdaily.com



박찬호, 에세이 출간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서전 '끝이 있어 시작도 있다' 출간 기념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52호' 통산 홈런 신기록 이승엽 홈런볼 별도 표식

이승엽(37·삼성)의 프로야구 개인 통산 352번째 홈런볼에 특별한 마크가 새겨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통산 홈런 신기록에 1개를 남긴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별도의 표식이 들어간 공을 사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19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의 방문경기부터 352호 홈런이 터질 때까지 적용된다. KBO는 2003년 이승엽이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홈런(56개)을 때릴 당시에도 표식이 들어간 공을 사용했다.

혼란을 막고자 그날 경기의 심판과 KBO 관계자만 아는 상징이 공에 들어간다. /연합뉴스